

발표자: 히데키 아오타니(Hideki Aotani)

토론자: 윤 비

히데키 아오타니의 글은 메헬렌(Michelen)에서 1451년 이후 반복하여 열린 성년(Holy Jubilee)의식이 전후사정을 연구함으로써 이것이 단지 면죄라는 종교적 의식으로서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부르군디 통치자와 로마 교회의 복합적인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려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렸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1447년 2월 에우제니우스 4세가 명한 메헬렌 내의 프란치스코 수도원 개혁을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과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당국 간의 분열이 가속화, 가시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부르군디 공과 시 정부가 1467년의 성년을 일종의 봉합의 계기로 삼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이다.

연구가 아직 진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발표시간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대폭 축소시킨 탓에 본 연구의 전모를 파악하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구는 그 포인트가 사건의 전개과정과 각 측의 입장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사료로부터 재구성해 서술하는가에 달려있으므로, 축약본으로 논의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한 논의 점을 간략히 언급하는 것에서 그친다.

1. 주요 주장 자체는 과연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거나 부족하게 설명되어 온 부분을 조명하고 있는가?
2.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적절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특히 여기서 저자가 소위 감정의 정치(Politics of Emotion)를 읽어내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